

제 1교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예. 방금 김 처장님께서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를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정 찬성자(남) : 최근 대학의 실정을 살펴보면, 사회의 수요는 많은데도 정원이 부족한 학과가 있는가 하면, 수요는 적는데도 정원이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과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수요 때문에 학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 반대자(여) : 사회는 대학이 사회적 인력 수요를 담당할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정 찬성자(남) : 서 교수님, 인기 없는 학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은 제한돼 있습니다. 대학도 경제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학과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정돼야 합니다.

조정 반대자(여) : 아니요. 경제 논리만으로 학과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 학문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사회자 : 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십니다. 경제 논리로 학과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상반되시는데요. 그러면 학과 조정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 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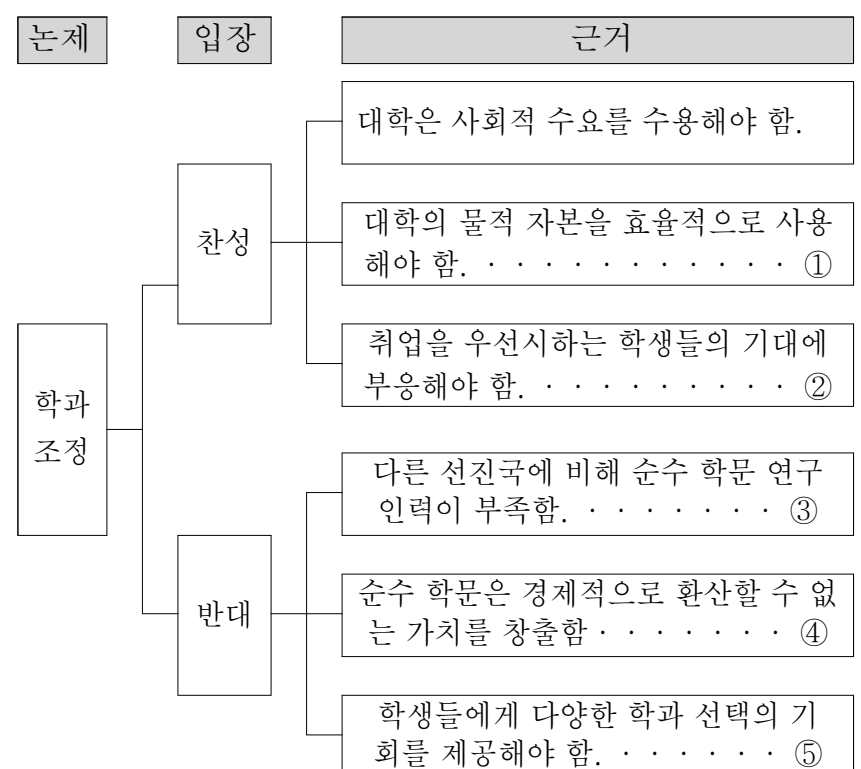
조정 찬성자(남) :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취업이지요. 따라서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러한 학과를 선호합니다. 대학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개설하고, 취업과 관련 없는 학과는 조정해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 반대자(여) : 글썽요. 학생들 관심이 취업이 잘 되는 일부 학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수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가진 여러 분야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를 유지하여,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률만을 고려해 학과를 개편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자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토론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 ③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며 토론자의 발언을 이끌고 있다.
- ④ 토론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있다.
- ⑤ 논점에서 벗어남을 지적하며 토론의 방향을 환기하고 있다.

2. 토론자들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 활용한 근거가 아닌 것은?



[3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는 이제 경기를 ㉥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밀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3.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〇〇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5.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6.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②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